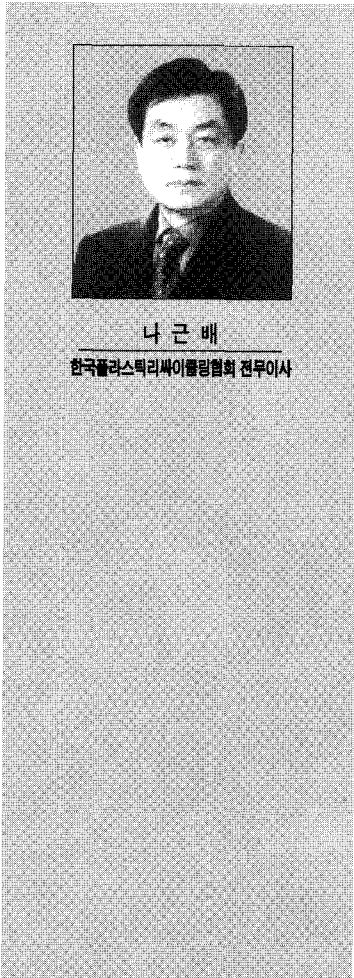




포장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과제

Packaging waste Recycling Policy



나근배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전무이사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제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되어 포장폐기물에 대한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캔이나 PET 용기, 유리병 등은 이미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이 부여된 '예치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체계는 처음으로 구축되고 그동안 폐기물 처리상 가장 문제시 되어 왔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이다.

늦은감은 있으나 껍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었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더욱이 시행 초년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플라스틱은 재질이 다양하고 사용처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품목도 다양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통계(생산, 유통, 재활용 등)도 믿을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 재활용 업체, 재활용 제품 사용처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국내 포장산업 선진대열 도약 기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많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이제 막 태어나 마치 걸음마를 내딛는 어린 아이와도 같다.

시행하다보니 부족하거나 미약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질타하고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발굴하고 토의하고 연구하며 개선책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활용 기술은 어떻게 개발시키고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확보해야 하며, 회수·운반 재활용의 경제적 제고와 재활용 제품의 판로 확보 방안 등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포장재는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용품이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될수록 증가되어진다.

최근의 포장재는 위생성, 단열성, 식품보전성, 완충성, 경량성, 편리성 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디자인이 중요시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장재가 경쟁에서 이기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 포장재를 선택하게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 자기가 생산한 포장재에 대하여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부 포장재를 규제하는 제도를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 생산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어져 첫 발을 내딛고 있다.

들출된 문제들을 문제시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여 우리의 포장산업이 무한 경쟁시대의 선진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 ☞

전문적 · 지속적 연구 당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자원확보 위해